

작곡가 박명훈 특별 강연회

2016. 5. 28 (토) 17:00 Start (open 16:30)

Buncademy 에서는 2016 년도 토루 타케미츠 작곡상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된 한국의 작곡가 박명훈씨를 초대하여, 그의 음악과 음악관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박명훈씨는 그외에도 여러나라 다수의 콩쿨에서의 입상경력을 지니고 있으며, 작곡에 있어서의 악기의 세심한 관찰과 연구, 신중한 사용으로 인한 섬세한 음색의 창출은 절찬을 받는 등, 한국과 독일 등지에서는 이미 그의 작품의 독창성을 인정받고 있는 실력과 작곡가입니다. 본 강연은 현대음악의 차세대를 이끌어갈 작곡가 박명훈씨의 음악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이며, 또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그의 강연을 일본내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도 흔치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강연은 일본어 통역이 따르고 본 강연과 관련된 모든 자료와 안내문 등에는 한국어와 일본어가 동시에 기재, 소개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기다립니다.

■ 강사 : 박 명훈 / Myunghoon PARK



작곡가 박명훈은 한양대학교에서 작곡 학사과정 졸업 후 독일 쾰른 국립음대에서 작곡 Diplom 과정, 작곡 및 전자음악 작곡 석사과정, 뒤셀도르프 국립음대에서 최고작곡과정 (Exellenz-studiengang Komposition)을 최우수 졸업하였으며 Johannes Schöllhorn, José M. Sánchez-Verdú, Rebecca Saunders, Michael Beil, York Höller, 이종구를 사사했다. 그는 종종 자연의 현상과 변화과정, 움직임 그리고 미술작품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작업하고 있으며 그의 작업에서는 집중적인 대조와 반복 그리고 작은 단위로의 처리방식을 주로 보이고 음색작업을 중요시 하고있다.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작곡 부문에서 파이널리스트로 입상, 중앙콩쿠르 1 위, 가우데아무스(Gaudeamus) 작곡콩쿠르 입상, 국제 윤이상 작곡상 대상 등 다수의 콩쿠르에서 입상했으며 현재 2016 년도 토루 타케미츠 작곡상에 파이널리스트로 올라있다. 한양대학교에서 작곡을 가르치고 있으며 현대음악 전문 앙상블인 Ensemble Eins 의 작곡가 겸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 통역 · 번역: 심효정 / Hyojung SHIM [인문과학박사(PhD in Musicology) / Buncademy 대표]

【장 소】 BUNCADEMY (Tokyu Toyoko Line Gakugeidaigaku Station 도보1분)

#303, Takaban3-1-3 Meguro-ku, Tokyo 152-0004 JAPAN

【수강료】 전대상 1,000 엔

【예약/문의】 info@buncademy.co.jp (한국어와 일본어로의 예약 모두가능)